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Tuesday 20 November 2007 (afternoon)
Mardi 20 novembre 2007 (après-midi)
Martes 20 de noviembre de 2007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a)

강

「눈이 내리는군요」

버스 안. 창쪽으로 앉은 사나이는 얼굴빛이 창백하다. 실직한 검정외투 속에 고개를 웅크리고 있다. 긴 머리칼은 귀 뒤로 고개 위에 덩굴 줄기처럼 달라붙었는데 가마 부근에서는 몇 날이 하늘을 향해 꼳꼳이 섰다.

5 「예. 진눈깨빈데요」

그의 머리칼 위에 얹힌 큼직큼직한 비듬들을 바라보고 있던 옆엿 사람이 역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목소리가 굵다. 그는 멋내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하얀 목도리가 밤색 잠바 속으로 그의 목을 감싸 넣어 주고 있다. 귀앞머리 끝에는 면도 자국이 신선하다. 그는 눈발 빗발 섞여 내리는 창밖에 차츰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다. 버스는 이미 떠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태연하기만 하다.

10

「뭐? 아, 진눈깨비! 참 그렇군」

그들 등 뒤에서 털실로 짠 검색 고깔 모자를 귀밑에까지 폭 눌러쓴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이 창문 쪽에 앉은 살찐 젊은 여자에게 몸을 기댄다. 그녀는 검은 얼굴에 분을 허영게 바르고 있다. 그는 창문 유리에 이마라도 대야 되겠다는 듯이 목을 쭉 뽑고 창밖을 내다본다. 여자는 가슴이 답답하다. 남자의 왼쪽 어깨쪽지가 그녀의 앞가슴계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별로 불편한 기색이 없다. 여자도 잘 참는다. 그녀는 머리를 의자 뒤에 기대 버린다. 운이 나은 탐스러운 머리채가 의자의 밋밋한 비닐 위로 나신처럼 곡선을 그린다. 잠바를 입은 앞자리의 사내가 뒤를 돌아본다. 그는 그의 행운이 부럽다. 그러나 뒤에 앉은 사내는 「정말이지 이건 진눈깨빈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열심히 창밖을 내다볼 뿐, 누가 뒤를 돌아보는 것 따위에는 흥미가 없다. 「정말이지 진눈깨비야.」

15

20

「형은 어디서 입대했었요?」

외투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진눈깨비에 원한이 있다. 그는 신용산에서 입대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데도 <입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염색한 흰 작업복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손에는 비닐로 만든 회색 세면 <부구로>를 들고, 그리고 여자 친구란 이럴 때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단아한 여자가 슬픔을 머금고 저만치 서있는 것을 그려 보면서……그러나 물론 그런 건 없었다. 그 대신 어디나 역 근처에는 흔히 있는 매춘부들 중의 하나가 형클어진 머리를 하고 역전 광장에 있는 더러운 공중변소에서 나와 게처럼 엉금엉금 걸어서 판자집들 사이로 사라져 갔었다. 입대할 사람들은 약 이십 명이었다. 환송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악대도 단 한 장의 태극기도 없었다. 진눈깨비만이 내리고 있었다. 역 청사 저쪽에서 누런 석탄 연기가 뭉클뭉클 솟아오르는 허공으로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마다 그는 「아, 이제는 서울을 떠나는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조금 전에 병든 창부가 사라졌던 판자집 쪽을 돌아보곤 했었다. 미구에 날이 저물고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화사한 감정들이 지루함 속으로 파묻혀 버렸을 때 병사구 사령부에서 상사가 하나 나와 그들을 인솔하고 논산으로 갔었다.

25

30

35 「나는 시골에서 입대를 했었던 말이요.」

잠바를 입은 사람은 조금 불멘 소리다. 그는 뒤돌아보던 자세 그대로 고개만 약간 돌려서 옆엿 사람을 쳐다본다. 그는 불만인 모양이다. 그러나 진눈깨비가 내린다고 해서 옛날 입대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는 훨씬 누그러진 목소리로 계속한다.

(서정인, [창작과 비평] 1968)

1. (b)

성애꽃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애꽃
 5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10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 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15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20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애꽃] 1990)